

국내산 양파 수출 3만t 돌파 ‘역대 최고’

작년 2천520t 대비 12배 증가 양파 수급관리 숨통
수출시장 14개국 다변화...관로 확대 등 홍보 지속

국산 양파 수출이 3만t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에 따르면 국산 양파 수출은 7월 말 기준으로 3만 3천341t(잠정)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당초 목표한 수출실적 1만5천t을 7월 초 돌파한 이후 한 달여만에 1만8천t을 추가 수출한 것이다.

이는 국산 양파의 역대 최대 수출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수출량인 2천 520t의 12배에 달한다.

기존의 연간 최대 수출량인 2014년 2만 4천t도 크게 뛰어넘은 실적이다. 특히 평년에 비해 늘어난 양파 물량(29만7천t)의 11%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양파 수급 관리에도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보인다.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수출시장 다변화라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 양파 수출이 시작된 5월부터 6월까지의 주 수출국인 대만이 수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나 현재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미국, 싱가포르 등지로 수출되는 물량도 33% 수준까지 증가했다.

aT는 올해 과잉생산된 양파 수출확대를 위해 5월 말 수출업체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6월부터 수출 물류비를 추가 지원해왔다.

특히 6월 개최된 말레이시아 박람회에 양파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한편, 7-8월에는 8개국 191개 매장에 '한국양파주간(Korean Onion Week)'을 진행하고 있다.

주 수출국인 대만에서도 관로 확대를 위해 130개 까르푸 매장에서 시식·관촉전을 열고 대만 라미고아구단 연계 스포츠 마케팅과 바이어 현장 방문 세일즈, rean Onion Week)'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홍콩 'HKTDC Food EXPO' 박람회에서 한국 양파·마늘·파프리카 등 신선농산물물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aT는 수출량 증가에 따른 저가 및 저품질 수출을 막기 위해 양파 수출업체 72개사에 수출질서 준수와 철저한 품위 관리를 요청하고 관촉행사 등을 통해 수출국을 더욱 다변화하는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 중소기업박람회(SME expo)에 참가해 한국 농식품 홍보관 'Nham Nham(남남) K-Food'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두유, 에너지드링크, 진생치초 등 현지 맞춤형 신메뉴를 선보여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aT, 캄보디아서 농식품 홍보관 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 중소기업박람회(SME expo)에 참가해 한국 농식품 홍보관 'Nham Nham(남남) K-Food'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두유, 에너지드링크, 진생치초 등 현지 맞춤형 신메뉴를 선보여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인식 농어촌公 사장, 농업용수 공급상황 점검

전북지역 현장 방문...수자원 확보 대책 마련 모색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최근 폭염 등 기상이변에 따른 안전 영농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전북지역 현장을 방문, 공사현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와 농업용수 공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순창군 팔덕면에 위치한 팔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 및 사업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업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사업비 집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에는 강천산 주변에 위치한 강천저수지를 찾아 장마 이후 시설물 피해상황 및 농업용수 공급현황 등을 점검했다.

공사가 관리하는 전북 지역의 416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75.3%로 평년대비 116.1%를 나타내고 있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별로 강수량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항구적인 수자원 확보 대책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이강환 전북지역본부장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공사 본연의 임무인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음을 물론, 공사 현장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해 현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최근 순창군 팔덕면 소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안전관리 및 농업용수 공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장 직원들과 합심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식 사장은 "폭염특보 상황에서는 가급적 현장직원의 충분한 휴식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수출단지를 신규 선정해 지속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양파의 역대 최대 수출기록은 관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생산농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현재의 흐름이 지속적인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수출업체와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모두 관심을 갖고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인공지능산업 융합·사이버 보안 내재화 맞손

KISA·GIST, 전문역량 활용 미래 성장 동력 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이 광주지역 인공지능 산업 융합 및 사이버 보안 내재화를 선도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김기선)은 6일 "지난 2일 GIST에서 에너지·자율차·헬스케어 등 광주지역 특화산업의 인공지능(AI) 융합을 촉진하고 사이버 보안 내재화를 선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역량을 활용해 AI 기반의 사이버보안 기술교류 및 공동 연구 수행, AI 및 사이버보안 분야 전문인력 교류, AI 중심 산업융합 보안 내재화 협력, 지역 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에 상호 협력한다.

특히 AI 중심 산업융합 및 보안 내재화를 통해 에너지·자율차·헬스케어 등

의 광주지역 특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AI 융합산업 데이터 비식별 조치, 보안 빅데이터 공유, AI 마신 보안 검증 공동 연구, 보안 전문 인력 양성 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GIST 김기선 총장은 "GIST는 광주시와 함께 광주 AI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자율차 헬스케어 등 AI기반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융합 R&D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글로벌 산업 발전에 기여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KISA 김석환 원장은 "KISA는 차세대 융합 서비스를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분야의 보안 내재화에 적극 힘 쓸것"이라며 "AI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보안성 확보를 통해 AI 기반 인터넷 경제 혁신·성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도서관 북페어’

무료 장서 나눔·스토리텔링 콘서트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은 최근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원 내 콘텐츠도서관에서 'KOCCA 콘텐츠도서관 북페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나주, 광주 지역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서, 만화, 게임 등 800여점의 장서를 무료로 나눠줬다.

또 '콘텐츠 스토리텔링 콘서트'를 통해 평소 지역에서 만나보기 어려운 콘텐츠 작가에게 콘텐츠 창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콘텐츠 스토리텔링 콘서트'에는 네이브 웹툰 '판다독'의 원작자인 '괴니이브'의 양주일 대표가 강연자로 나섰다.

광주, 나주지역 초·중·고 학생을 포함한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양주일 대표와 직접 웹툰과 캐릭터 창작 및 진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콘진원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도서관'은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별 도서, 정기간행물, 영상자료, 게임자료, 음향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료 열람, 도서 대출이 가능해 콘텐츠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및 유관기관 직원들의 콘텐츠 누림터가 되고 있다.

콘진원 김영준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콘진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한전KDN·신한대학교, 신재생에너지 MOU

캠퍼스 에너지 자립화 사업 모델·센터 구축 추진

한전KDN과 신한대학교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및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전KDN은 캠퍼스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사업모델과 신재생에너지센터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및 협력을 맡게 된다.

한전KDN은 신한대학교와 경기북부 산학연 기반의 신재생에너지센터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태양광, ESS(Energy Storage System)등을 활용한 신한대학교의 에너지 자립화시스템을 구축하며 교내 부지를 활용한 연료전지발전소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전KDN과 신한대는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30% 이상 달성을 위한 정부정책과 경기도 북부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적극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알로에겔, 대두이소플라본

알로에겔: 대두이소플라본 함유 100%
대두이소플라본: 알로에겔 함유 100%
알로에겔: 대두이소플라본 함유 100%
대두이소플라본: 알로에겔 함유 100%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CMYK